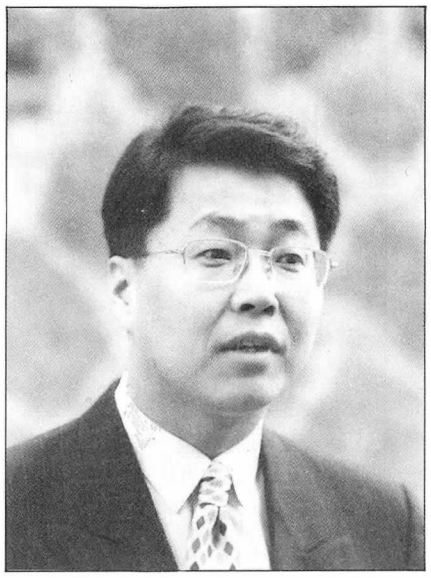
# 영어학습에 도입한 생산성 개념

## 「영어병 10가지」 펴낸 박광희씨



영어만 잘할 수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자기계발 컨설팅' 대표이자 전 연합통신 외신부 기자였던 박광희씨(36)는 「영어병 10가지」(현암사)에서 그들을 '습관성 영어 강박증 환자'라고 부른다. 생산성 개념 없이 올림픽정신으로 참여하는 영어공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 그 시간과 돈으로 더 많은 정보 획득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만 있다면 영어를 포기해도 좋다는 주장이다. "돈 벌어서 통역사를 고용하면 되지요."

그러나 국제화시대의 정글에서는 영어구사 능력이 최고의 호신술이자 무기이다.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정보획득은커녕 살아남기도 힘들다. 「영어병 10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적인 영어병을 진단하고 그 처방전을 제시한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영어로써 어떤 정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출판업 종사자들이 자동차 세일즈맨과 똑같은 교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병이 다르고, 같은 병이라도 증세가 다른 법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어공부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출판종사자들은 영어로된 서평·출판 전문지를 우선 구독해야 한다. 기사를 숙독할 필요는 없다. 정보획득이 목적이므로 헤드라인과 중간제목 등을 눈으로 가볍게 읽는다. 혹 가치있는 내용이면 사전을 펴놓고 읽으면 된다. 모르는 단어와 해독불가능한 문장 범벅이라도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거듭 말하지만 정보획득이 목적이므로." 그렇게 공부하면 '어느 천년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나옴직하다. 저자는 "김대통령 조깅하듯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면 가랑비에 옷이 젖어 있을 것"이라고 답한다.

박씨는 이 책에서 한국인의 고질적 영어병을 습관성 영어 강박증, 문법 바이러스, 만성 어휘 결핍증, 영영사전 기피증, 작문 콤플렉스, 회화 노이로제, 청취 발작증, 독해 환각증, 시사영어 공포증, 어학연수 과대망상증으로 분류했다. 독자들이 자신의 증세를 자가진단하고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도록 '병상일지 및 처방' 항목을 두었다.

영어학습에 생산성과 경쟁력 개념을 도입한 박씨의 학습방법은 메모지 활용법이다. 일부러 시간 내지 않고 틈틈이 공부한다. 그 메모쪽지가 와이셔츠 상자 12개를 가득 채웠다. 그는 아직도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것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김중식 기자



# 신세대들의 성과 사랑의 사고방식

## 「내 사랑엔 내가 없다」 펴낸 여난영씨

신세대들의 사랑과 성문화에서도 '여자는 사냥감, 남자는 사냥꾼'이라는 가부장적인 모습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학을 공부한 여난영씨(32, 자유기고가)가 동갑내기 친구 전미영씨와 공동 작업을 거쳐 내놓은 「내사랑엔 내가 없다」(김출판사)가 그것. 록카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야타족이나 오렌지족 등 신족속들을 대상으로 요즘 세대들의 성과 사랑의 사고방식을 살펴본 책이다. 특히 페미니즘 물결이 더욱 거세어진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이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추이를 가늠할 수 있어 더욱 흥미진진하다.

"사랑과 성이란 우리의 영원한 주제 아니겠어요?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자기 혼자만 '특별케이스'의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젊은이들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들의 성과 사랑에도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난영씨는 '신세대들의 사랑과 성관념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궁금증을 갖고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성과 사랑에도 어떤 각본이 있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 영화나 소설거리와 같은 사랑이 실은 똑같은 혹은 비슷한 각본에 의거한 것이라는 말은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다.

"사랑에 빠지거나 섹스를 할 때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개는 공통점이 있지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상냥하고 따뜻한 손길을 바란다거나 반대로 여자들은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하면 여성은 "온전한 사랑의 동반자"가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남자는 "늘 능력있고 남자다운 모습을 유지"하느라 행복한 사랑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내사랑엔…」는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부담있는 각본'을 벗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연인관과 사랑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씨는 이 작업을 하면서 "사랑하면 섹스도 가능하다"는 신세대들의 조건적 성관념을 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에 관한 한 그들은 '혼돈의 모습'을 보였다.

"여자들도 자유로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못했고, 순결을 요구하려면 정조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남성도 반기를 들지 못했죠."

개방된 의식구조와는 달리 여전히 가부장적인 '순결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실감했다는 여난영씨. 그는 얼마전에 「초보엄마 화이팅」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세살바기 딸아이를 둔 주부이다.

——배은희 기자


*질병 치료의 비결, 바로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저자 김태정 박사는 16살 때 영양 실조, 황달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중 주변에 살던 촌부 한 분이 권한 약초를 이용한 민간요법으로 완쾌되었다고 한다. 이후 젊은 시절 잠시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어릴 적 촌부가 처방한 신비로운 약초를 찾아 나서면서부터 야생 식물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본격적으로 야생 식물 연구와 탐사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 최신 최고급 컬러판 • 야생식물 민간요법 총망라 호화 양장본/ 신국판 908쪽/ 특보급가 38,000 원

약이 되는 **한국의 산야초**

**KBS-2TV 전국은 지금에 소개된** 야생 식물학자 **김태정** 저

알기쉬운 **가정한방 동의보감** — 송효정박사 감수/ 값 10,000 원

동의한방 **약차 · 약술** — 신준식(자생한의원)원장 감수/ 값 10,000 원

동의한방 **보약** — 인기 프로 「MBC 라디오 동의보감」 출연 신재용(해성한의원)원장 저/ 값 10,000 원

**국일문학사와 국일미디어가 공동으로 발간한 민간 요법 시리즈**

1 기적의 **매실 요법** — 松本紘齊 저/ 유준태 역/ 값 6,000 원

2 신비의 **솜잎치료법** — 上原美鈴 저/ 유태종 감수/ 값 7,000 원

3 신비의 **마늘요법** — 기준성 감수/ 값 7,000 원

4 **이재희의 포도요법** — 이재희 저/ 값 8,000 원

5 몸에 좋은 **산야초 치료법** — 송효정 편저/ 원색도감/ 값 18,000 원

6 **신선초로 병을 고친 사람들** — 구경림 추천/ 값 7,000 원

7 **알로에로 병을 고친 사람들** — 홍문화 감수/ 값 7,000 원

8 몸에 좋은 **감자요법** — 안덕균 감수/ 값 6,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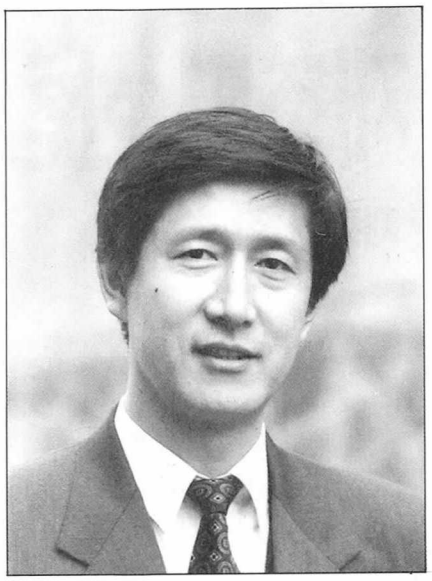
9 약이 되는 **한국의 산야초** — 김태정 저/ 원색도감/ 값 38,000 원

10 병을 물리치는 신비한 **생야채 녹즙요법** — 기준성 감수/ 값 6,000 원

**국일문학사** T. 237-4523 **국일미디어** T. 253-5291

# 멕시코 현실에 대한 체험적 이해

## 「북미의 작은 거인…」 펴낸 김원호씨



"'아미노(친구)' 관계가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아미노가 되는 과정이 어려울 뿐이다."

멕시코에서 2년 7개월간 살았던 김원호씨(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중남미실장)가 멕시코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함축 소개할 때 즐겨 쓰는 말이다.

김씨가 미국에서 중남미 지역 연구 박사과정을 끝내고 달려갔던 멕시코. 그곳 아메리까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겪어본 멕시코라는 나라와 그들의 국민성을 바탕으로 하여 쓴「북미의 작은 거인 멕시코가 기지개를 켠다」(민음사)를 내놓으면서 김씨는, 왜곡된 문화적 선입견에 젖어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로 비하했던 멕시코를 지금이라도 현실감을 갖고 바르게 볼 것을 권유한다.

"통상정책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인 이후 멕시코는 대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넘지 않으면 안될 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제대로 알아야 나프타에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이 책을 통해 나프타 시대 개막 이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멕시코의 경제·정치·사회적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또한 그 나라의 역사·지리적 개관을 한데 아우르고 있어 멕시코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노사관계와 외국인 투자 등 주요 정책분야를 분석한 장은 그곳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과 그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하다.

"최근 외신을 통해 멕시코의 페소화가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는 상황이 전해져 멕시코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던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절하된 환율을 역이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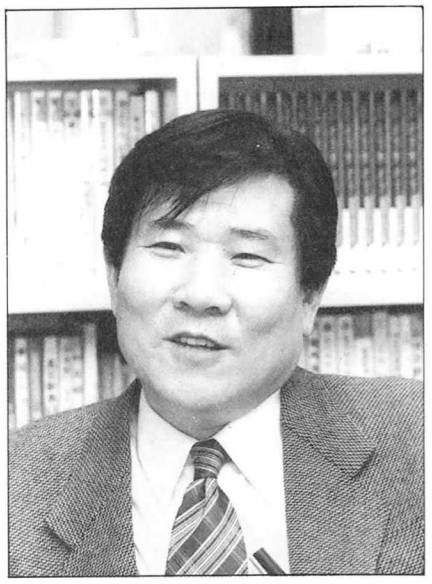
미국시장을 겨냥하자면 차라리 멕시코를 진출기지로 삼아서 나프타 규정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는게 기업으로선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그가 보는 멕시코는 "분명코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이면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다. 단 그곳에서 성공하려면, "끈기를 갖고, 멕시코인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 이는 그의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이다. 그도 처음엔 멕시코 사람들의 게으름에 놀랐다고 한다. 한국인 특유의 조급함으로 밀어붙이다가 '된통' 일을 그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느릿느릿' 풀어가는 인간적인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그는 브라질과 칠레를 중심으로 한 남미편을 출간할 예정이다.

——배은희 기자



# 국방부 최초 문민대변인의 회고록

## 「나무도 아닌 것이…」 펴낸 손풍삼씨



'군인'이라는 직업은 아직까지 낯설다. 그 정도는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여자들에게 심하고, 군사정권의 호된 맛을 본 사람들은 여자들보다 더하다.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비쳐지기도 한다.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현대사에서 몇몇 군인이 자행한 악업이 모든 군인에 대한 인상을 구겨놓았다.

"군사문화의 결집체가 바로 관료조직입니다. 관료사회에서는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수직적으로 경직된 문화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최근「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서지원)를 펴낸 손풍삼씨(51, 국제사회문화연구소장)의 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다. 물론 이런 말을 늘어놓기는 참으로 편하다. 하지만 손풍삼씨의 이력을 보면 이 말이 갖는 무게의 근원을 짐작할 수 있다.

손풍삼씨는 육군 중령으로 청와대 비서관에 들어갔다가, 국무총리실 실무국장, 국방부 문민 대변인을 역임해온 사람이다. 권위주의라면 신물이 나도록 맛본 사람의 입에서 군대와 정부 조직체에 대한 비판의 소리로 '권위주의'를 거론한 것이기에 그의 입담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나무도 아닌 것이…」는 사실 소설이 아니다. "아직 회고록을 쓸 만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몇개의 이름만 가명을 썼을 뿐 이 책은 자신이 살아온 날에 대한 회고록이다.

이종구씨가 20사단 사단장으로 있을 때의 만남, 수도경비사령부 정훈참모시절의 전두환씨와의 만남 등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데, TK도 아니고 '하나회'도 아니었던 한 군인이 살아온 현장은 가끔 푸근함도 느끼게 한다. 또 "센 곳" 청와대의 풍경도 담겨 있다.

손풍삼씨는 자신을 "5공의 사람이지 6공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전두환씨의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만큼은 탁월했다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백담사로 들어갈 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던 그 모습이 전두환씨답습니다. GNP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밤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만 되면 "본인은…"으로 시작되는 연설문도 사실은 "대통령은 하늘이 선택한 것과도 같은 권위가 있는 직위"라고 믿던 기자출신 공보관계직원의 원고때문이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손풍삼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본질이라고 한다. 인간이 중심에 서 있을 때 정치는 "상식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인생의 8할은 전주 신석정 시인이었다고 회고하는 그는 요즘 카뮈의「최초의 인간」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한다. ——이성수 기자


최신 주식 투자 입문

*주식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벌어 주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라도 두뇌의 3% 정도를 늘상 투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보다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은 종목을 고르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엄주엽 저/ 값 8,000 원

국일 재산 증식의 길잡이

1 주식 투자의 비결
구영한 저/ 국일증권연구소 옮김/ 값 7,000 원

2 주식 소프트
염후권 · 김현 공저/ 값 7,000 원

3 주식을 사는 법 파는 법
이재형 편저/ 값 7,000 원

4 증권 교실 100문 100답
복영보 편저/ 값 7,000 원

5 증권 투자 길잡이
염후권 저/ 값 7,000 원

6 증권 기사 읽는 법
국일증권연구소 편/ 값 5,000 원

7 주가와 경제
나가따 에이쥬 저/ 염후권 옮김/ 값 6,000 원

8 알기쉬운 주식 명언 격언집
국일증권연구소 편/ 값 6,000 원

9 알기쉬운 주식 이야기 입문
구영한 저/ 값 7,000 원

10 주식 투자 노하우
염후권 저/ 값 6,000 원

11 펀드 매니저의 주식 투자 전략
자문회사 펀드매니저 편/ 값 5,000 원

12 증권 투자 전략
전철 저/ 크라운판 2° 인쇄/ 값 12,000 원

13 알기쉬운 주가 차트 100% 활용법
염후권 저/ 값 6,000 원

14 주가 차트 입문
국일증권연구소 편/ 값 6,000 원

15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불을 벌었다
니콜라스 다비스 저/ 값 7,000 원

16 알기쉬운 주가 지수 선물 거래 입문
오시학 · 염후권 공저/ 값 6,000 원

17 최신 주식 투자 입문
엄주엽 저/ 값 8,000 원

국일증권연구소
TEL.237-6646/7 FAX.237-4524